



기고 김재출 여수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축사화재의 취약성 및 화재예방요령

지난 12월 순천시 둔사에서 원 인미상의 화재로 3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축사화재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축사화재는 일단 발생하게 되면, 재산피해 규모가 매우 커서 축산농가의 각별한 예방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남지역에서는 총 245건의 축사화재로 208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전기가 125건(51%), 부주의가 72

건(29%) 순이며, 계절별로는 겨울(12~2월) 89건(36.3%), 봄(3~5월) 58건, 여름(6~8월) 54건, 가을(9~11월) 44건 순으로 나타났다.

축사시설은 대부분 전기시설이 노후화되고, 방열등·열풍기·환풍기 등이 상시 가동되고 있어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으며, 동간 방화구획 미설치와 이격거리가 짧고, 우레탄폼이나 스티로폼판넬 등 가연성 보온재 사용이 많아

화재 시 급격한 연소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밀폐형 조립식 구조로 가족들이 연기에 의한 질식으로 피해규모가 증가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대부분 농·어촌 등 소방관서와 원거리로 위치하고 있어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축사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전기 배선을 교체하고 보온

전등이나 배전반에 쌓인 먼지를 제거해야 하며, 누전경보장치 또는 아크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전기, 가스 용접, 흡연 등 화기취급시에는 소화기를 근접 배치하고, 인근 가연물에 불티가 연소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축사 증축이나 신축을 할 때는 가연성보온재 대신 그라스울판넬 등 불연성 재료를 가급적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축사 동간 안전거리를 최소 3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며, 화재에 대비해 소화용수를 확보하고, 화재시에는 청소용 고압세척기를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평소 연습해 두어야 한다.

끝으로, 소방자가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축사 입구쪽 도로변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소방차 진입 통로를 확보하는 등 축사화재 예방을 위한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社 說

스포츠 폭력 근절해야 한다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 최근 공식 발족했다니 기대가 크다.

인권위 조사관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파견공무원 등 2팀 총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은 향후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활동기간을 연장할 계획이 있다.

특별조사단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단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준비 중으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지속해서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체육계 내부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끌어내기 위해 참여자의 익명을 보장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조사 취지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등 선수들이 안심하고 실태조사에 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특별조사단은 진용 상

담·신고 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 접수에 나선다.

특별조사단은 실태조사 또는 신고를 통해 피해 사례가 파악되면 피해자가 원하는 형태로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단체 또는 종목별 직권조사함으로써 권리구제에 나선다.

특별조사단은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계, 학계, 여성계,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15인으로 구성된 '스포츠인권 자문위원회'도 구성했다.

조사단은 이번이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성폭력 문제를 해소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기한과 관계없이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조사단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도 용기를 갖고 인권위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건조한 날씨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

최근 건조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 소식이 전해졌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산불은 2~5월에 집중 발생하며, 올해 2월 중순까지 108건의 산불과 약 51ha의 산림이 피해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발생한 산불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여러 곳에서 사망자나 부상자, 호흡기 질환자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산림과 문화재가 소실되거나 산림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초래, 대기오염 발생이라는 직·간접적인 막대한 피해가 동반된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입산자의 실화나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시 라이터나 버너 같은 인화 물품은 아예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산림뿐만 아니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취사 행위,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도 금해야 한다.

산림 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산불 가해자는 산림 보호법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

지자체 및 산림청은 산불 조심기간인 이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했으며, 소방관서에서는 산림 인접 문화재·전통사찰의 안전점검, 등산로 산불조심 예방 캠페인, 산림 인접 지역 인화물질 제거 지원 등의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피해복구를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보존될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김한다 /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모두 앞장서야

2월 19일은 24절기의 두 번째 절기인 우수였다. 우수는 눈이 비로 바뀌어 내리고 얼음이 녹아서 물로 변화되는 때를 뜻하는데 이는 긴 겨울이 가고 본격적으로 봄을 맞을 준비를 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 시기를 즈음해 우리 모두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해빙기 안전사고이다. 해빙기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붕괴 사고이다. 행정안전부 통계(2008년~2017년) : 해빙기 안전사고(45건, 20명) 중 절개지, 낙석 위험지역 22건(49%) 발생, 인명피해 18명(90%) 건설공사 현장 흙막이 벽 붕괴로 인해 발생

따라서 주변 노후 건축물 등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며, 절개지나 언덕 위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주변 도로나 시설물에 균열이 생겼는지 여부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행정기관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주위의 사소한 부분까지 세밀히 관찰하고 관심을 기울일 때 대형 재난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국민들은 위험요인 발견시 국민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people.go.kr) 또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우수 신고자는 신고실적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포상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119 및 시·군 재난관리부서 등 행정기관에도 신고가 가능하니 주변 위험요소 발견시 즉시 신고하여 사고발생에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안전은 우리의 생명·신체·재산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결코 소홀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안전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성준 / 무안경찰서 경위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故事成語

慎 終 宜 令

삼갈 미칠 미망 하여금 신 중 의 령

慎 終 宜 令

▷ 뜻: 처음 뿐만 아니라 끝맺음도 좋아야 함.

湖南新聞 (062) 222-5547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 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010-5330-553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민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유통망형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